

“끈기 키워주는 마라톤 덕분에 세계 평화 의지도 커졌죠”



‘마라톤 전도사’ 전남대 정재종씨의 도전 인생

‘울트라 마라톤’ 입문 1년만에 4개 대회 완주 철인 3종경기도 ‘거뜰’ ... ‘사막 마라톤’ 준비 “역사 바로 알리고 분쟁 지역 평화 기여하고자”

“세상에는 볼 것도, 할 일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극적으로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힘든 울트라 마라톤을 왜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마라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인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선택한 것이 마라톤입니다.”

전남대 인문대학 독일언어문화학과 3학년 정재종(26) 씨는 기말고사를 앞둔 상황에서 마라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큼은 목소리에 활력이 넘쳤다. 달리는 재미에 흠뻑 빠져 ‘마라톤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그의 도전이 학교 안팎에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부터 ‘울트라 마라톤’에 입문한 그는 엄청난 체력을 필요로 하는 대회에

서기록을 써나가고 있다. 울트라 마라톤은 일반 마라톤 풀코스(42.195km)의 두 배를 넘는 100km 이상의 거리를 달린다. 울트라 마라톤에 입문한 지 불과 1년 만에 그는 각종 대회에서 완주 기록을 썼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열린 울트라 마라톤(100km)을 시작으로 부산 비치 울트라 마라톤(100km), 2014년 세종시 울트라 마라톤(100km), 대구성지순례 울트라 마라톤(100km) 등 4개 대회를 완주했다. 부산 비치대회와 2014 세종시 대회는 올 3월에 열린 대회로, 그는 한 달 사이에 200km를 달렸다. 또 일반 마라톤대회 풀코스도 4차례나 완주했으며 스프라타레이스(5km+장애물), 철인 3종경기의 일종인 아쿠아슬론(마라톤 10km+수영 1.5km) 대회에도 출전해 끝까지 뛰었다.

군 제대 이후 지금까지 그가 뛴 거리만

1년 만에 604.875km에 달한다. 그는 보통 사람은 평생 한 번도 하기 힘든 마라톤대회 완주 기록에 울트라 마라톤까지 더해져 쌓여가고 있다.

어릴 적 천식으로 고생했던 정씨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영 등 다양한 스포츠를 섭렵했다.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 것은 군 복무를 함께한 아마추어 마라톤 선수 출신 간부 때문이다. 그와 함께 뛰며 달리는 즐거움을 알게 된 그는 제대 후 본격적으로 마라톤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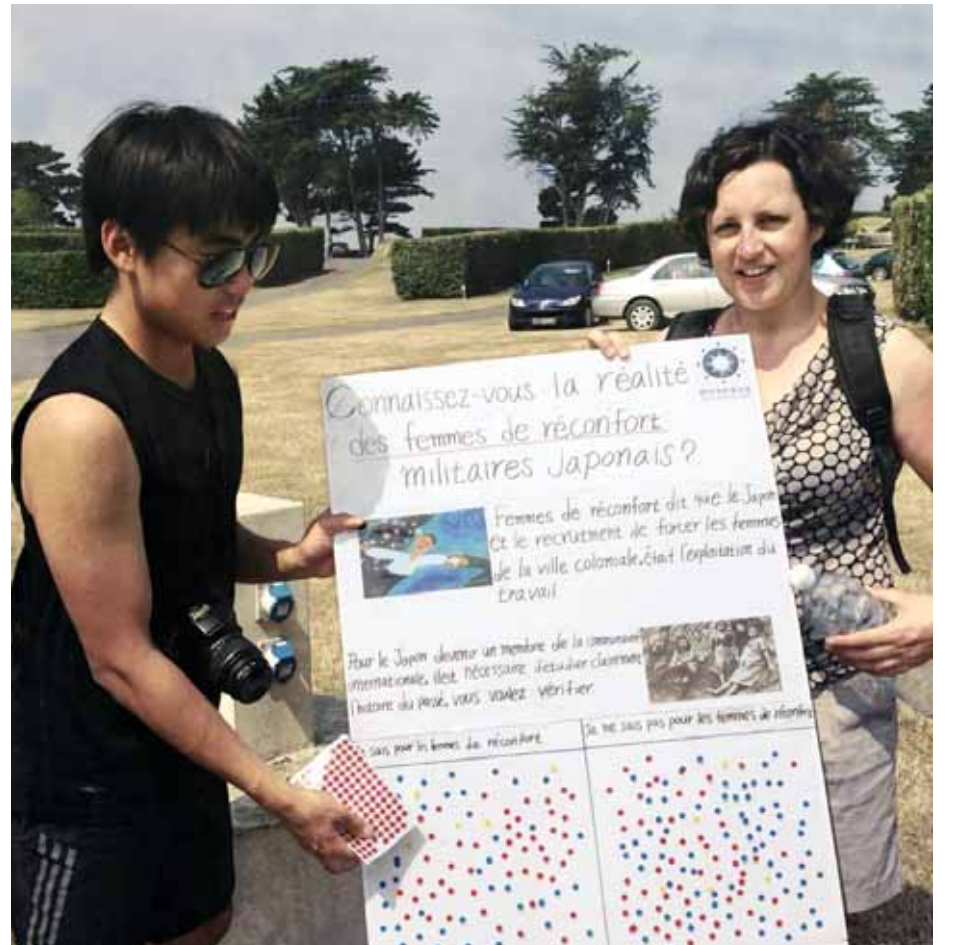
“달리는 즐거움은 달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70km가량 달리면 다리 통증도 사라지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낍니다. 완주했을 때 얻는 성취감은 물론 달리는 즐거움과 끈기까지 키울 수 있기에, 마라톤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프랑스로 배낭여행을 떠나 특별한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독일어를 전공하며 프랑스어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그는 ‘과연 서양인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사건이 얼마나 알려졌을까?’ 하는 궁금증으로 행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경험은 그에게는 큰 자극이 됐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아픈 역사는 우리가 겪은 일입니다. 한국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군의 과거 만행을 외국인들에게 알려주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가 합니다. 파리에서 만났던 외국인들을 통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힘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학업 틈틈이 체력을 키우며 ‘4대 극지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 더 큰 목표가 있다.

“전 세계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에서는 지금도 정치·종교적인 이유로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찾아가 평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계속 달리겠습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2013년 7월 프랑스로 배낭여행을 떠난 정재종 씨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제자들과 학교 위해 써달라” 하늘로 간 교사의 마지막 바람



암으로 숨진 배성자씨 남편, 합평여중·월야중에 2000만원 전달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는 게 아내의 뜻이었습니다.”

암 투병 끝에 생을 마감한 합평의 한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에 장학금을 내놓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최지성(52)씨가 합평 월야중과 합평여중을 찾아 장학금 1000만원씩을

전달했다. 이들 학교는 지난 4월 담관암으로 투병하던 고인이 된 최씨의 아내 배성자(사진) 교사가 근무했던 곳이다.

최 씨는 “하늘나라로 먼저 간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바람이었다”며 “작지만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 써달라”고 장학금에 얽힌 사연을 밝혔다.

배 교사는 지난해 1학기까지 합평 월야중에서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교감 연수에 들어갔다. 연수 중 난대암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가 지난 4월 끝내 숨졌다.

합평여중은 배 교사가 월야중 근무 전에 있던 학교로, 이 곳에서 교무부장을 맡아 갖은 일을 도맡아 하는 등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헌신적이었다.

동료 정환숙(여·58) 교사는 “배성자 선생님은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학생들과 학교 생각을 멈추지 않았고 제자들에게 대한 사랑도 대단했다”며 “마지막까지도 제자들과 학교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어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장명순(여·37) 교사도 “자녀들이 아

직 대학생이어서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배 선생님의 뜻에 따른 부근의 결심도 감동적”이라고 말했다.

합평 월야중 관계자는 “배성자 선생님은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등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교사였다”며 “교감 연수 성격도 우수해 올해 교감 발령이 날 것으로 모두가 기대했는데 허망하게 가셔서 가슴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두 학교는 배 교사와 남편인 최씨의 뜻을 이어받아 장학금을 학생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흥우체국 봉사단, 독거노인 가정 지붕수리



고흥우체국(국장 김민석) 소속 늘푸른봉사단원 20여명이 고흥군 금산면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지붕수리와 도배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남지방우정청 제공〉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무 홍보의 날’ 환경정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문병민)은 지난 18일 병무 홍보의 날(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맞아 “나라사랑, 주민사랑, 환경사랑”이라는 주제로 환경정화 등 봉사활동을 참여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제공〉

광주시 ‘공예명장’에 정종구·한경희씨 선정

광주시 ‘공예명장’에 민예공방 정종구(56·왼쪽) 대표와 한경희조형연구소 한경희(여·55·오른쪽)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

정종구 대표는 불변한 몸으로도 41년 동안 목공예에 종사하면서 목공예의 저변확대와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경희 대표는 종이공예가로 지승재 조 지장자 최영준 선생에게서 전통 지승공예 기술을 전수해 31년 동안 지승공예에 종사하면서 지승공예 제작과정과 해외 전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 지승공예의 맛을 세계 여러 나라의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송희성 여성지도자연합 광주전남회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공로상 수상

송희성(76) 한국여성지도자연합 광주전남회장이 지난 1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창단 45주년 기념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송 회장은 한국여성유권자 광주연맹 초대회장으로 지역 여성들의 여권신장 운동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정치 및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오원진주여성회 회장과 여성유권자



광주연맹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송 회장은 “여성의 권익보호와 민주화를 위해 끝까지 일하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공로상은 다시 한 번 사명을 일깨워주는 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한연택(옥과송원식당 대표)·김명숙씨 아들 상천군 맹기원·정경희씨 딸 설화양=21일(토) 낮12시 아름다운컨벤션 티파니홀(1층).
- ▲김재완(광명컨트리클럽 사무이사)·김민숙씨 차남 남용근 홍기룡(광주송원중학교 교장)·노향숙씨 장녀 자연양=21일(토) 오후 1시 아름다운컨벤션 2층 베르사체홀.
- ▲임배근·우영자씨 차남 옹호근(포스코 광양제철) 최희우(전남대 종합민원실장) 임정애씨 차녀 유선양(전주 오송중)=22일(일) 오전 11시 라페스타웨딩홀 4층 다이아몬드홀.
- ▲현성권(전남환경센터국장)·정해자씨 장남 주용근(부천 세종병원 의사) 이영희씨 차녀 영옥양(세무회계사)=22일(일) 오후 2시 스타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

동창회

- ▲광주체육중·고 총동문체육대회(회

장 김도형)=22일(일) 오전 10시 모교체육관 010-5644-7786.

종친회

-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유적지 순례=21일(토) ~ 22일(일) 이화회, 청년회, 여성회 지원 사무실와 6시30분출발 세종대왕영능, 단종대왕장능, 준경묘, 영경묘, 강원도 일원 062-225-5636.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중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 ▲비틀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gene-korea.com

- ▲광주신세계희망장난감도서관 자유 놀이실 무료이용=건강한 놀이문화 조성 위한 장난감 대여 및 놀이공간 제공 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북구 오치2동 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 월요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062-264-0060.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모집

- ▲농성문화의 집 오전요가=균형있는 몸매와 정신을 맑게 깨우는 요가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매주 화·금, 오전 9시 30분 ~ 10시30분) 062-362-2072.

- ▲광주·전남 영화·드라마 엑스트라 및 보조출연자=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062-674-4008 ~ 9.
-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힘나는 학습클리닉’=청소년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습관과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힘나는 학습클리닉’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062-268-1388.
- ▲살레시오 가족합창단 모집(단장 나금주, 지휘 김철수)=살레시오 초·중·고 졸업자 및 그 가족이며, 합창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부부 중 한분이라도 동문이면 됨),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상무중학교(운전저수지 옆) 010-3404-3712(단장).
-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음악(악기)에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최소 6개월, 주 1회 2시간 가능하심. 062-233-0468.
-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광주광역시지부 특전사=예비역 및 회원 수시 모집 062-225-6500, 011-

610-5575.

부음

- ▲김양례씨 별세 황철홍·주흥(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필홍(단국대 교수)씨 모친상=발인 20일(금) 강진군 강진장례

- 식장 061-432-4004.
- ▲김중선씨 별세 민태·지윤씨 부친상=발인 20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 ▲최송자씨 별세 황승욱·승민·미숙·영심씨 모친상=발인 21일(토)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상가 故人的 冥福을 받습니다	
101호 故이숙현 님(여/54세) 子/子婦 : 안연길/이영희 女 : 안진연, 안연지 • 발 인 : 6월 21일 • 장 지 : 영락공원	102호 故이선태 님(남/75세) 子/子婦 : 임동원/곽민경, 임영민/박완진 女/婿 : 임미현/최준성, 임미숙/이동우 • 발 인 : 6월 20일 • 장 지 : 남평읍 선영
401호 故전덕택 님(여/85세) 子 : 김원영 女 : 김진서, 김도영, 김자심 • 발 인 : 6월 21일 • 장 지 : 신안 지도읍 선영	402호 故서민석 님(남/77세) 子 : 서승구 女/婿 : 서수민, 서보경/김일동 未亡人 : 임지선 • 발 인 : 6월 20일 • 장 지 : 영락공원
201호 故김우영 님(남/89세) 子/子婦 : 김성중/전계순, 김양중/배선희, 김창중/김경진, 김석중/황은선 女/婿 : 김선자/김철규, 김경미/이재훈, 김진희/주명환, 김효영/김진진 • 발 인 : 6월 20일 • 장 지 : 화순 청룡 선영	
孝 金호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	